일터

하반기 취업 시장

대기업 채용 시작… 바늘구멍 뚫어라

삼성 3,400명·현대 기아차 2,500명 등 모집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이 열릴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자에 비해 턱없이 좁은문인 만큼 착실히 준비해야 뚫을수 있다.

◇얼마나 채용하나=삼성그룹은 다음달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간다. 채용인원은 3천400명.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는 졸업 연도 제한 규정을 폐지, '취업 재수생'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대기업 중 유일하게 졸업예정자와 직전 학기 졸업자에 한해서만 공채 지원을 받았다. 예컨대 올 상반기에는 직전 학기인 2009년 2월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인 2009년 8월 졸업생 외에는 공채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졸업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준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하반기 2천500명의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 다만, 현대·기아차 및 현대모비스 등 각 사별 채용 인원 및 세부 계획은 조정을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9월말부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기로 하고 각 사별로 적정 인원을 우선 파악중이고 SK그룹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1천명으로 잡았다.

KTF와 합병한 KT는 10월 말 금년 첫 대졸 공채를 실시한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여명 늘어난 150명으로, 합병에 따른 유·무선 통신 통합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KT&G도 다음달부터 주요 대학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갖는다. KT&G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비슷한 60명 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은 9월 500명 규모의 신입·경력 공채를 추진한다.

이외 농수산물유통공사도 다음달 4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아 한식 세계화 및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력 30명을 선발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신입사원 채용은 3년 만이다.

금융권의 경우 우리금융그룹이 다음달 3일 리크루트를 통해 공개 채용 공고를 낸다. 이번 공고에는 우리금융그룹 내 우리은행과 광주·경남은행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대략 200명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지난해(210명) 수준의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중이다.

◇취업 전략은=취업정보 제공 업체 관계자들은 막연히 '사무직에서 일해볼까'가 아닌, 목표 직장을 택한 뒤 집중 공략하는게 성공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희망 직장에 대한 채용 일정, 시기 등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소한 것까지 챙기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자신이 그 업무에 적합한 이유와 지금껏 겪은 경험을 해당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에 도움이 된다.

각 회사의 입사 전형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삼성의 경우 졸업 연도 제한 규정 폐지 외에 최근 공채 영어회화 자격 기준을 한 단계 상향 조종한 점을 감안, 오픽과 토익스피킹을 준비해야 한다. 5가지 영역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도 상위 30%에 포함돼야 면접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주요기업 채용 상담·설명회 (9월)

설명회	기업	상담회
9. 1 (16:00)	GS건설	
9. 3 (15:00)	예금보험공사	
9. 4 (15:00)	산업은행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9. 3~4 (10:00)
9. 4 (15:00)	삼성물산 상사부문	9. 4 (10:00)
	녹십자	9. 8 (10:00)
	삼성증권	9. 7~8 (10:00)
	삼성화재	9. 7~10 (10:00)
9. 10 (14:00)	우리은행	9. 10 (10:00)
	삼성중공업	9. 10~11 (10:00)
9. 11 (14:00)	LG CNS	
9. 14 (14:00)	포스코	9. 14 (10:00)
	포스렉	9. 14 (10:00)
9. 14 (16:00)	포스콘	9. 14 (10:00)
9. 14 (16:00)	CJ그룹	9. 14~15 (10:00)
9. 14 (14:00)	대우증권	
	한미약품	9. 14 (10:00)

주요 그룹사 하반기 채용 계획

그룹	예상인원	시기
대림	60명	상반기 인턴 50% 정규직으로 내년 1월 전환
두산	500명	9. 1~13
삼성	3천400명	9월
신세계	100여명	9월 이후
한진	455명	미정
현대건설	미정	9월 중순 이후
현대기아자동차	2천500명	각 계열사별로 상이
현대중공업	미정	9월
KT	150명	10~11월
LS	150명	10월
SK	1천여명	8월말
STX	1천명	9월 중순
금호아시아나	미정	9월 말~10월 초
LG 이노텍	500명	9월

〈자료: 잡코리아, 각 사〉

수완지구 롯데마트 입점 예정대로

중기청, 중소상인측 사업조정 신청 기각

광주 수완지구의 롯데마트 입점을 막아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기각됐다.

중소기업청은 27일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롯데마트 광주 수완점에 대해 낸 사업조정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수완지구의 경우 택지 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지역으로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아닌 탓에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 감소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중기청은 또 롯데마트의 수완지구 입점 사실은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알려진데다, 지구 24개 아파트 단지 내 들어선 18개 슈퍼마켓은 롯데 마트가 문을 열더라도 심각하게 피해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롯데마트 광주 수완점은 광주시가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완지구에 오는 9월 개장할 예정으로,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인근 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마트 대상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롯데마트측은 "당초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을 신청한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측은 "아직 중기청으로부터 정식 통보가 없었다"면서 "정확한 기각 사유를 통보받는 대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계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

4분기 지역경기 '맑음'

광주상의·韓銀 전망

최근 대내외 경기 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09년 4·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분기(114)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도는 것이다.

BSI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응답자 가운데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가 39.4%(전 분기 34.9%)로 '악화'를 예상한 업체 20%(전 분기 2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답은 41%였다.

세부 항목별로 수출(117)과 내수(104)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생산량 수준(108), 생산설비 가동률(107) 등의 생산활동과 설비투자(104) 등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이날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도 9월 업황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제조업(79→94)과 비제조업(72→82) 모두 전달보다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1차금속과 석유화학 업종 등의 매출전망BSI(86→90)를 비롯, 생산전망BSI(87→95), 신규수주전망BSI(85→96), 가동률전망BSI(85→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비제조업도 매출전망BSI(76→74)만 2포인트 하락했을 뿐 업황전망BSI(72→82), 채산성전망BSI(80→91)가 상승했고 경기상승기에 하락하는 인력사정전망BSI(107→105)는 2포인트 내려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 경기를 밝게 보는 CEO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소 상인에 1,000억 지원

중기청 내달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매업자에 다음달부터 1천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중소 소매업자 긴급 지원금 1천억원을 포함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추석 자금 등으로 다음달부터 총 3천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 소매업자가 소유한 점포의 시설과 인테리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매장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소매업자 지원 자금은 연 4.22% 변동금리로 1년 거치 4년 분할로 상환하며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중기청은 내년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 교육 등에 270억원, 전통시장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마케팅 등에 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